

賦存 植物資源을 利用한 食品加工產業의 展望을 위하여 - 山果類를 中心으로 -

張 智 鉉

(聖心女子大學 教授)

여 잠시 적은 所見을 놓아 보고자 한다.

絕對食糧資源으로의 吸收面에서

우리 나라의 地域特性은 大部分이 山地로構成되어 있다 해도 過言은 아니며 全國土의 約 70%가 山地라는 倚形的 食糧生產與件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主穀生產은 制限을 받는 반면 山林資源은 比較的 豐富할 뿐 아니라 많은 賦存植物資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食糧이란 巨視的인 次元에서 볼 때 現實的으로 食糧化가 可能한 山果類를 비롯하여 山菜類, 山藥類에 이르기까지 可用食糧資源이 豐富하고도 多樣하게 賦存되어 있다.

拙者는 이를 賦存 野生植物資源은 能動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案으로서 이를 賦存資源을 高次食品生產產業으로 誘導되기를 希望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期待하면서 여기서 山果類를 중심으로 그의 可能性과 展望에 대하

全國土의 70% 이상이 山地環境이란 與件 속에서 나머지 30%에 달하는 耕地面積의 生產性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食糧需給은 極히 어려운 實情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主穀爲主의 食糧供給面에서는 人口當 耕地面積의 不均衡을 깨고 絶對量供給을 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보는 것이 常識일 것이며 적지 않는 食糧을 계속 輸入에 依存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

그 뿐 아니라 今世紀 이래 浮刻되기 시작하고 있는 主穀過剩 生產國들 간에 食糧의 武器化 政策이 점차 노골화 경향을 치닫고 있는 現實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같은 食糧輸入 依存國간에는 食糧의 需給展望에 대한 不透明으

로 인한 공포분위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닥아올지도 모르는 爆發의 인구增加를 意識할 때 食糧需給問題는 더욱 가늠기 어려울 뿐 아니라 食糧의 絶對不足이란加重된 압박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豫想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와같은 食糧의 絶對不足이란 어려움이豫想되는 狀況下에서 그 壓迫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最少限의 도움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豊富하고도 多樣하게 賦存되어 있는 野生可用植物資源을 絶對食糧圈內에 早速히 吸收시켜야 하고, 또한吸收시킬 수 있도록 이들 資源을 發掘·保護·育成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에도 이들 賦存資源을 放置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有用한 資源으로 轉用하기 위해서는 計劃的인 管理·生產概念이 뒤따라야만 하고, 한편으로는 이들 資源을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窓口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充足시킬 수 있는 길이란 오로지 高次加工食品으로서 常用化될 수 있는 段階까지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役割은 食品產業分野가 도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土俗食品 開發面에서

全國的으로 賦存되어 있는 野生植物 資源 가운데는 質的인 面에서 栽培植物 資源 못지 않게 常用食糧圈내에吸收시킬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보다 優良한 食品資源으로活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代替食品으로 轉用될 수 있는 資源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들 野生植物資源을 高次加工食品資源으로 活用할 수 있는 勇氣와 지혜가 뒤따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西歐의 食品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土俗化

食品의 定立이란 次元에서 이들 資源을 活用할 생각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萬若 食品產業分野에서 이들 賦存植物 資源을 土俗化 食品의 生產資源으로 끌어 올려 준다면 우리 나라는 또하나의 食糧資源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期待하는 것이다.

(1) 山間地에 中間食品工場 내지 低次加工食品工場을 建立할 수 있게 되므로서 山間地는近代化된 產業圈으로 擴散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土俗食品 生產의 前衛的 役割에 山間地住民이 參與하므로서 農外所得을 提高시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이다

(3) 地域特性에 알맞는 土俗食品을 開發하므로서 物的 觀光產業育成에 活力を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4) 나아가 食糧의 絶對量 供給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自然食品으로의 期待面에서

最近에 이르러 農業生產性의 提高를 위하고 특히 重化學工業 為先의 國家의 違行課題의 餘波로 빚어진 多角의 公害要因의 加重으로 하여금 重金屬 内지 化學性 汚染食品의 恐怖 속에서 無公害食品에 대한 期待는 점차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農業生產性을 위협하는 無農藥栽培, 無肥料(合成)栽培를 거론하게 되는 등 脫公害 自然食品에 대한 都市人們의 關心度는 점차 高潮一路에 있다.

예컨대 野生植物資源만이 公害圈에서 벗어나 天然의 환경속에서 自然의 條件으로 生產되는 無公害食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野生植物資源만이 自然食品資源이라는意义上 그들의 消費量은 또한 急

林產物生產量

종류 年度	밤 l	호도 l	잣 l	대추 l	도토리 l
1975	15,181,209	581,423	851,905	1,166,688	1,380,700
1976	17,379,404	558,378	763,696	742,676	1,552,769
1977	37,409,822	464,619	750,970	889,137	2,163,193
1978	58,173,690	779,243	1,193,019	2,029,500	2,464,972
	비자 l	은행 l	산딸기 kl	버섯 kg	산채 kg
1975	21,789	103,534	43,707	992,760	1,217,417
1976	19,886	109,388	457,804	798,329	1,279,876
1977	17,969	163,624	479,218	1,053,826	1,380,663
1978	11,994	180,572	211,658	1,843,867	1,481,825

增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無公害自然資源을 食品資源으로 食品產業이 吸收하고 無公害加工을 거쳐 自然食品을 開發供給한다면 食品產業은 新種開發食品 戰略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資源不足이란面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하나의 資源窗口가 될 것으로 展望해 보는 것이다.

II. 有用資源

賦存 植物資源의 全國的인 分布狀況이라든지 그들의 生產量등에 대한 仔細한 公式報告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며, 이때문에 곧바로 野生植物의 資源化를 크게 期待하기는 어렵다 하겠지만 部分的인 野生植物資源에 대하여 政府가 公式報告한 林產物生產量(1979年 經濟統計 參照)에 보면 다음과 같이 眼히지고 있다.

한편, 全國的으로 分布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傳來食品 가운데서 有用하게 利用되는 山果類의 種類를 먼저 整理하여 보면 豆乙竹(들죽), 山葡萄(머루) 猴葡萄(다래), 桑椹(오디), 覆盆子(산딸기), 五味子(오미자), 栗·松子(잣), 橡子(도토리), 가래등이 有望

株로 浮上된다.

그러나 이를 가운데서도 賦存量이 工業的으로 經濟性을 充足할만한 生產量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現在 人工栽培로 代替되고 있는 種類 등은 純野生植物의 術주에서 除外되어야 하므로 活用對象이 되는 種類는 더욱 적어지리라 생각되며, 이제라도 곧바로 食品加工對象으로 示目되는 種類는

〈머루〉 〈다래〉 〈산딸기〉 〈오미자〉 〈도토리〉 〈가래〉 등으로 壓縮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參考로 曰시 部分의인 一部 地域에 대한 分布現況이기는 하나, 江原道(主로 太白山地域)內의 이를 分布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江原道內 地域別 野生山果類 生產可能量
(太白山地域中心) (單位 : ton)

地域別 資源別	塞溪嶺	五臺山	平昌	旌善	計
머 루	49.87	11.68	38.44	5.47	105.48
다 래	62.77	8.33	7.20	2.99	82.49
가 래	72.55	11.80	7.25	3.78	95.48
도토리	393.00	139.00	65.25	145.00	742.25
딸 기	—	—	1.50	5.00	6.50
오미자	0.15	0.58	1.15	0.23	2.11

1979 江原道 道政研究報告書 參照

江原道內 地域別 도토리 生產推定量

(單位 : ton)

地 域 別	生 產 量	地 域 別	生 產 量	地 域 別	生 產 量
原州郡	0.7	原城郡	1,092.4	華川郡	2,570.5
江陵市	1.1	寧越郡	3,968.2	楊口郡	9,266.0
春城郡	1,501.8	平昌郡	8,440.9	麟蹄郡	8,488.1
洪川郡	6,116.9	旌善郡	5,904.1	高城郡	36.8
橫城郡	980.8	鐵原郡	187.9	襄陽郡	2,595.4
溟州郡	4,189.4	三陟郡	2,843.8	計	49,855.2

1979 江原道 道政研究報告書 參照

그러나 江原道內에서 만도 이보다 더 많은量이 生產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를 肉半침하는 한 예로 〈도토리〉의 生產量을 全江原道로 擴散시켜 推定한 結果를 參考로 列舉하여 보기로 한다. (이 根據는 도토리의 分布 내지 生產量을 江原道 全域에 걸친 現在의 林相別 蕎積量을 基礎로 推定한 것이다)

예컨대 도토리의 生產量이 全江原道 内에서 만도 年間 5만ton이 生產될 수 있다는 結果로 集計됨에 따라 全國的인 生產量은 여기에 言及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도토리 이외의 山果類에도 이 結果가 反影된다면 적지 않은 賦存植物資源을 우리나라라는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列舉한 有用資源들은 全國的인 生產量을 고려할 때 經濟性 面에서 우선은 加工食品對象 山果類資源을 充足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計劃生產에 關心을 돌린다면 엄청난 生產量을 얻으리라 생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食品工業分野의 勇氣를 期待해 보는 것이다.

III. 加工製品의 類型

위에서 1次의으로 選定한 有用野生植物資源

〈며루〉, 〈다래〉, 〈가래〉, 〈도토리〉, 〈산딸기〉 〈오미자〉 등을 對象으로 각각 可能하다고 믿어지는 加工食品으로서 類型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高次加工食品其他

〈며 루〉 며루주(釀造酒), 며루부란디(蒸溜酒), 正果類, 果汁飲料類, 베타類, 챙·찌리類 등

〈다 래〉 다래주(釀造酒), 正果類, 乾果類, 챙·찌리類, preserves, 베타類 등

〈산딸기〉 正果類, 果汁飲料類, 乾果類, 챙·찌리類, preserves, 산딸기주(釀造酒) 등

〈오미장〉 正果類, 果汁飲料類, 챙·찌리類, 오미자주(再製酒) 등

〈가 래〉 餡強正類(엿 강정), 正果類, 糖果類, 食用油脂, 油脂製品類 등

〈도토리〉 粗澱粉…泡(득), 餅, 粥·茶食類, 精製澱粉…麵類, 菓子類, 水餡 등

其 他

組立食品原料, 複合調理食品原料·着色·加香原料 등에 利用될 수 있는 製品類.